메주고리예

제17호

Medjugorje 지도신부 : 신경남 스테파노 /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April, 2003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없단다.

예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모시어라.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너희들을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희망을 간직하여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여기로 보내심으로써 너희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강렬히 바라고 계신단다. 나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길로 초대한다. 기도하여라, 그러면 기도 중에 너희는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다; 바로 기도 안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너희는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2003년 3월 25일>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신경남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뉴욕 포담대학
종교교육 대학원 박사 과정

1997년 이전까지 "메주고리예 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고, 그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으며 많은 신자들이 그곳을 순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1997년 그 해부터 "메주고리예" 라는 말이 내 마음 속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았던 어느 선배 신부님께서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오신 후 당신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지않게 놀랐다. 그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본당 사목을 하시고, 많은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참된 존경을 받는 분이 그곳에서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왔다. 그 후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곳을 순례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의 성모님은 그렇게 천천히 나를 부르셨던 것이다.

1999년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를 시작했다. 바쁜 학교생활에 밀려 메주고리예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2002년 봄, 메주고리예 성모님은 본격적으로 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당신의 안배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우연처럼 보이는 경로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뿌려진 메주고리예 순례에 대한 열망을 꽃피우게 하셨다. 안식년 차, 미국에 와 있던 어느 후배 신부를 통해 메주고리예 순례 봉사에 헌신하고 계시는 남홍익 그레고오, 남미자 미카엘라 부부를 알게 되었다. 이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 메주고리예의 성모님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그해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드디어 메주고리예 순례길에 올랐다. 오랜 억압과 전쟁으로 상처입고 찢기워진 땅, 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의 메주고리예는 너무도 평범해 보였지만 그곳은 평화가 흘러 넘치고 기도로 가득찬 곳이었다. 다양한 언어와 국적, 그리고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모님을 통해 세상, 교회, 가정 그리고 본인들의 참된 평화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자체가 큰 감동이었다. 그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 해 온 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영혼은 상처가 치유되고, 때가 벗겨지는 것을 체험했다. 사실 가시적인 기적적인 표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런 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를 포함해서 그곳을 찾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좀 더 회심을 하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모습 자체가 내게는 진정한 기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 후 12월 성탄에 즈음하여 다시한번 메주고리예를 찾았다. 역시 그 감동은 이전의 그 순례 못지 않은 것이었다.

얼마 전, 이 두 번의 순례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응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남 그레고리오 형제로부터 '평화의 모후 선터 U.S.A.' 웹싸이트 지도신부를 맡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모임을 하는 중에 일어났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북미주 지역에 한정된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의 활동 영역이 좀 더 넓어져 다른 지역에 있는 해외 교포 신자들과 한국 신자들에게 까지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를 '평화의 모후 선교회' 로 개칭하고 발전적인 해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그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구체적으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정식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추대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영적 지도신부 로서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꿈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결성을 위한 모임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난 밤, 꿈을 꾸었다. 난생 처음 성모님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에 나타난 성모님은 분명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모습이었다. 꿈의 시작에 나는 절벽위에 서 있었다. 갑자기 내 앞에 하늘을 날으는 차가 나타났고, 나는 그 차에 올라탄 채 투명하게 발밑에 펼쳐지는 광경을 짙켜볼 수 있었다. 그 차가 땅에 도착했을 순간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쳤다. "저기 성모님이 계시다." 그의 외침을 듣고 모든 사람이 전방을 쳐다보았을 때 정말 거기에 성모님이 서계셨다.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기쁨에 넘쳤다. 나 역시 기쁨에 넘쳐 환호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성모님은 내 앞에 다가오셨다. 나는 너무도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그 분 앞에서 크게 소리를 내며 마치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 "성모님, 당신이 아시다시피 저는 당신께 대한 신심도 그리 깊지않고 죄도 많고 너무도 부족한 사람인데 언찌하여 저를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로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성모님은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얼마나 자애롭고 따뜻했던지 성모님은 그렇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당신의 사도로 부르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꿈을 꾸고 난 후 남 그레고리오 형제와 대화를 나눌 때 일어났다. 그레고리오 형제 역시 우리의 모임이 있기 이틀 전에 나와 유사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결국 '평화의 모후 선교회' 탄생과 선교회 지도신부로서의 나의 소임은 성모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너무도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성서의 여러 곳에서 하느님은 꿈을 통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 계획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 꿈을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곳은 평화가 흘러 넘치고 기도로 가득찬 곳이었다.
다양한 언어와 국적, 그리고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모님을 통해 세상, 교회, 가정 그리고
본인들의 참된 평화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자체가 큰 감동이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그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남 그레고리오, 미카엘라 부부가 중심이 되어 2000년 10월 '평화의 모후 센터 U.S.A.'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를 근간으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할 수 있었고, 그 순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가정이 성화되었고, 평화의 기도회 모임들이 생겨났다. 뿐만아니라 사제, 수도성소를 지향하는 젊은이들도 탄생했다.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 뉴스레터 "메주고리예"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신자들 뿐만아니라 한국에 있는 신자들에게 까지도 평화의 모후 메주고리예 성

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1995년 2월 25일 평화의 모후 메주고리예 성모님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있는 메시지들이 실천되기 위하여 너희 모두가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이 메시지의 내용대로 우리 모두가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고, 그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제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를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로 확대 출범시킨다. 앞으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계승 발전시키며 평화의 모후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인 기도, 단식, 성체성사, 매일 성서읽기 그리고 고백성사의 중요성과 실천 필요성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미나와 관련 인사들 (예, 웨인 와이블, 목격증인 이반, 비스카, 요조신 부님과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성소를 받은 외국 및 한국 신부님들)의 초청 강연, 관련책자 보급, 한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메주고리예의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인 핵심은 우리와 세상의 회개이다.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리라는 요구이다. 하느님의 구원과 평화는 인간의 회개를 전제로 한다. 하느님께서는 1981년 6월 24일 첫 발현 이래 지금껏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을 통해 우리와 온 인류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신다.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바로 주님 구원사업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도구로써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M

2003년 3월 18일 미리야나에게 주어진 성모님 연간 메시지

2003년 3월 18일
미리야나 드라기체비취-솔도 (Mirjana Dragicevic-Soldo)에게 있었던 성모님 연간 발현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 24일부터 1982년 12월 25일까지 목격 증인 미리야나 드라기체비취-솔도 에게 매일 발현하셨다. 마지막 매일 발현 중에 성모님 께서는 그녀에게 10번째 비밀을 주셨고 당신께서 일년에 한 번, 즉 매년 3월 18일에 미리야나에게 발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지금껏 매년 연간 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수 천명의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예 체나꼴로 공동체에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동안 성모님께서는 미리야나에게 발현하셨다. 오전 8시 55분 부터 9시 2분까지 발현이 계속 되었고, 성모님께서는 미리야나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특별히 이 거룩한 보속과 기도의 시기에 나는 선택을 하도록 너희를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 내 메시지들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땅에서의 현재의 너희들 자신과 앞으로의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하여.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지 말고 생명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이 자리에 있어주어 고맙구나."

남 그레고리오<본지 편집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어머니

찬미 예수님 성모님

처음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후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처럼 너무나 행복했다. 물론 그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자 했지만 메주고리예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마음은 성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농부가 밭을 갈다 보물을 발견하자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심정과 같았노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 평화의 모후 센터 " 는 언젠가 때가 되면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훌륭한 봉사자들과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며 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굳게 믿었다. 아내 미카엘라와 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모님의 집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종의 마음으로 노력해왔다. 평화의 모후 센터 일을 하면서 보람있었던 일 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NY과 LA에서 있었던 요조 신부님의 행사를 주관한 것이었다.

4500명 고아들의 생활을 돌보고 계시는 요조 신부님께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미국 강연을 마련하신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부탁드렸으나 거의 한달을 하루도 빠짐 없이 미전국을 다녀 야하는 강행군이었기에 도저히 시간을 내실 수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셨다. 그래도 우리의 지속적인 부탁에 며칠 동안을 숙고 하시던 요조 신부님은 결국 하루 밖에 쉬실 수 없는 당신의 일정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셨다.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신 신부님께서는 당신은 한국 사람들의 열심한 믿음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드디어 허락은 받았으나 우리에게는 그날부터 열흘 밖에 시간이 없었다. 더구나 메주고리예의 순례가 끝나려면 3일은 더 있어야하니 과연 7 일을 남기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으나 이 일정을 허락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다.

우리들의 급한 연락을 받으신 박창득 몬시뇰께서는 우리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행사 장소와 도와줄 봉사자들까지 미리 정해 놓으시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 그와 같은 많은 분들의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전 홍보를 할 시간이 없었고 또한 강연회가 주중인 월요일에 열리게되어 과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요조 신부님의 수행과 영어 통역을 맡은 낸시 여사에게 연락이 왔다. 그날 오후 늦게 도착하신 요조 신부님이 몸살이 나셔서 열이 심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실 정도로 몹시 아프시다는 연락이었다. 어쩌면 행사를 취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모두 함께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자는 부탁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묵주를 들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부님은 불편한 몸으로 강연회를 이끄셨고 신부님의 헌신적이고 열절한 모습에 그 자리에 모였던 청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쓰시는 신부님과 함께 하시며 뉴욕과 캘리포니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성모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재를 써가며 성모님의 메시지를 좀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나름대로 헌신해 왔으나 평신도가 하는 일이기에 그 동안 때로는 가슴 아픈 상처도 받았으며 견디기 어려운 오해의 말을 들어야 하였을 때는 나에게도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었으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진실은 절대 외면 받지 않는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침묵하며 견딜 수 있었다. 이 어려운 부르심에 고생을 마다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 가게까지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주며 격려해주고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준 아내 미카엘라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실망케 하시지 않는 성모님께서는 때가 되자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운영하던 "평화의 모후 센터"를 당신의 선교회로서 미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서 등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며 이제부터는 개인이 아닌 함께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끌어주셨다.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김한기 신부님에 이어 지도를 맡아주신 신경남 신부님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자 여러분들을 보면 성모님께서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실감한다. 이 선교회가 성모님의 평화를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모님께서 2003년 3월 18일날 미리아나라는 메주고리예의 목격 증인에게 주신 말씀에서 " …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 메시지들을 마음 깊이 새겨들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할지,어떻게 해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땅에서의 현재의 너희들 자신과 앞으로의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하여,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지 말고 생명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한다. 성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던 은총의 시기 라는 말씀대신 거룩한 보속과 기도의 시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을 노하게 하지 말고 생명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고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어머니로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셨다. 정말 이 세상은 하느님의 평화가 사라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포장된 거짓 평화로 가득찬 세상이 되어버렸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희생과 피해자라는 몫이 돌아올 뿐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느님만이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 "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 한 사람…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은 꼭 이루진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메주고리예에 오신 성모님께서는 하루 빨리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와 희생과 보속으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에게도 주셨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어둠과 불신 그리고 갖은 모함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께서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M

김철석 찰스 이학박사
얼바인 한인 천주교회 전 사목회장

메주고리예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 입장

가톨릭 신자로서 메주고리예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성모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바로 메주고리예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면서 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회심하였으며 이웃과 서로 화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며 믿음을 성장시켜왔다. 또 세계 도처에서 여러 기도단체가 생겼으며 또 메주고리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성소의 길로 인도하였다. 메주고리예야말로 전례 없는 현대사의 극적인 초자연적 현상인 것을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았다. 하늘나라가 틀림없이 있고 하느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곳이 바로 메주고리예이며, 많은 사람들이 목격증인들을 통하여 성모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해준 곳이 바로 메주고리예이다. 이 얼마나 귀중한 은총의 시기를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우리는 이 귀중한 시기를 받아드려 선용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1. 바티칸 대변인, 요아퀸 나바로-발스(Joaquin Navarro-Valls) 박사는 1996년 8월 21일 바티칸의 가톨릭 신문 지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발표한 그 날 뒤늦게 다시 바티칸 신문에 추가로 발표하기를: "천주교 신자들이 어디에 갈 때에는 그들은 영적 지도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신도들이 마련한 메주고리예 순례단체에 사제들이 동반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나바로-발스 박사는, "그 후 메주고리예에 대한 바티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고 언급하였으며, "교회나 바티칸이 메주고리예 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한 적이 있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고 명백히 밝혔다. (가톨릭 신문지, CNS New Release 1996/8/21 발표)

그리고 메주고리예에 관한 바티칸의 입장은 다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2. 1998년 1월 1일 프랑스 세인트-데니스 교구장 길버트 오브리(Gilbert Aubry) 몬시뇰이 교황청 신앙교리성 비서 타치시오 버톤(Tarcisio Bertone) 대주교 (랏징거 Ratzinger 추기경 회장)에게 서신으로 메주고리예에 관한 문의사항들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1998년 5월 26일 바티칸의 신앙교리성이 보낸 응답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 문서는 공식 계통을 통하여 프랑스의 전 주교에게 전달되었음)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Pr. No 154/81-06419
신앙 교리성(교황청의 상임위원회)

길버트 몬시뇰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1998년 1월 1일 소위 말하는 메주고리예의 발현과 사적인 순례 그리고 그곳을 찾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에 관하여 또 모스타 교구 주교의 입장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저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 하나 하나에 회답을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 신빙성에 관해서 보통 직접적인 해석이나 판결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만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발현의 신빙성에 관해서 바티칸은 1991년 4월

10일 전 유고슬라비아 주교님들이 채택한 '자다 선언문(Declaration of Zadar, Yugoslavia)' 을 따릅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발현과 계시 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 그 후, 유고 연방국이 다른 여러 독립국가들로 분리되었음으로, 지금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주교회의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재조사해야하고 또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선언문을 발표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3. 다음으로 자니치 주교님의 후임인 페리치 주교님이 전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메주고리예에 관한 발현과 계시에 대해서 "초자연성은 확립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초자연적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확립되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스타의 주교로서 개인 의견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며, 그분은 그곳 지방의 주교로서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 개인의 의견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끝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메주고리예 순례활동에 관해서, 교황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또 아직도 교회 당국에 의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건하에서 순례를 허락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귀하께서 교황청에 제출하신 문의사항들 중에서 적어도 주요한 질문에 한해서는 제가 드린 것이 만족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비서[랏징거(Ratzinger) 추기경 회장] 타치시오 버톤 (Tarcisio Bertone) 대주교 드림

위의 편지를 요약해보면:

1. 모스타 주교님의 성명서는 단지 그분의 개인 의사를 반영하고 있을 뿐, 우리의 동의와 순명을 요구하는 공식적이며 명확한 판단은 아니다.

2. 자다선언문은 장래 발현에 관한 조사필요성을 남겨놓고 있으며, 그 동안 사제들이 신자들의 순례를 동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한다.

3. 사실상 그 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가 새로운 조사 위원회를 사라예보에서 구성했다.

4. 모든 순례자들은 메주고리예로 가도 좋으며 이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순명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아래는 위 편지내용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숀본 추기경님이 1998년 7월 18일 루르드에서 하신 해설이며 우리의 심금을 울려준다. 숀본 추기경님은 비엔나의 대주교이며, 교황님과 교황실의 1998년 사순절 피정을 맡았으며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의 대표 저자이다.

몬시뇰 길버트 오브리 Gilbert Aubry) 교구장에게 보낸 버톤(Bertone) 대주교님의 회답편지는 메주고리예에 관하여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온 공식 입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즉 교회는 고의로 그 문제를 미결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며, "초자연적인 성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한 것은 전 유고슬로비아 주교회의가 1991년 자다 선언에서 사용한 말이다.

초자연적인 성격이 충분히 확증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메주고리예의 발현이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부인하거나 도외시하지도 않고 있다. 특이한 현상들이 발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교황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성장과 좋은 열매를 도와주며, 어디에서나 눈에 보이는 위험에서 메주고리예와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실로 우리 목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루르드에서 일어난 최초의 은총이 불행한 사건들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명하고도 좋은 열매를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불행한 사건에서 보호하도록 주교님들이 앞장서서 메주고리예를 보호하는 것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일러주신 성모님의 그 말씀은 2천년의 역사를 통해 성모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여오신 그 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며 또 성모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메주고리예로 인하여 감화를 받은 저는 이것을 모든 기도단체들이 추구하기를 바라며, 또 우리 교구청과 교회에게 도이를 원하는 바입니다.

저 자신은 아직도 메주고리예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녀온 여러 친지들과 만나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곳에 다녀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봅니다. 만일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을 부정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확실하며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주고리예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구와 다른 여러 곳에서 회개의 은총, 초자연적인 현상을 받아드리는 신앙생활의 은총, 성소와 치유의 은총, 성사를 재발견하는 은총, 그리고 고해성사의 은총 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은 우리를 절대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교로서 이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좋은 열매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면, 저는 그 나무가 매우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 7: 17-18>

비엔나의 대주교이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대표저자이신 크리스토퍼 숀본 추기경. M

요조 신부에 관한 해명 서한들

12. 12. 2002 ? 우리는 요조 신부님에 대한 루머들과 그분을 고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내용들은 십여년 이상 메주고리예 영어권 순례자들을 돌봐온 필립 파비취 (Philip Pavich) 신부가 우리에게 보내온 것이다.

요조 신부님이 사제로서의 모든 성무를 정지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모스타 교구에서 요조 신부님이 사제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것은 그분이 오직 모스타 교구내에서만 공적인 미사 성제를 거행하거나 설교하거나 혹은 고백 성사를 듣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리치(Peric, 역자주: 모스타 교구장) 주교님의 서한을 접수한 내셔날 슈라인 담당자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hrine)를 제외하고는 다른 미국 주교님들은 요조신부님의 방문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정한 지역에서 무면허 의사가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조 신부님은 메주고리예의 순례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적으로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순례자들과 대화하거나 그분을 방문하기를 원하는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스타 교구 주교님들이 순례자들이 시로키 브리예그 (Siroki Brijeg)에 계시는 요조 신부님을 방문하는 것을 공적으로 제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성무 정직된 상태 (suspended)" 라고 말한 잡지 '원더러 (The Wanderer)'의 기사는 공정하지 않고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suspensus a divinis"(모든 성무로부터의 정직), 즉 한 사제가 미사는 물론이고 그 어떠한 성사도 거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다 엄격한 형벌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페리치 주교님의 서한은 요조 신부님이 1989년 티할리나 (Tihaljina)에서 메주고리예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수녀원 혹은 수도원인 "convento lontano" 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지 근신 중 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잡지 원더러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요조 신부님이 성추행을 한 바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페리치 주교님은 당신의 서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분을 고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실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그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은 관구장 슬라브코 솔도 (Slavko Soldo) 신부님과 프란치스코회 총대리 스테파노 오텐브레잇 (Stefano Ottenbreit) 신부님의 서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한들은 요조 신부님께서 비록 모스타 교구장에 의해 벌을받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프란치스코회내에서 수도 사제로서의 신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 21. 2002 ?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회원인 요조 신부님의 프란치스칸으 로서의 신분에 대해 계속해서 저

희에게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희는 프란치시코회 총대리 스테파노 오텐브레잇 신부님 (Fr. Stefano Ottenbreit, OFM, Vicar General of the Order of Friars Minor (OFM))과 헤르체코비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몽소승천 프란치스코회 관구 관구장 슬라브코 솔도 신부님 (Fr. Slavko Soldo, OFM, Provincial Herzegovinian Franciscan Province of the Assumption of the BVM)의 서한들 공표하는 바입니다. 프란치시코회 총대리 스테파노 오텐브레잇 신부님 (Fr. Stefano Ottenbreit, Vicar General of the Order)은 다음과 같이 쓰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회 총대리로 봉직하고 있는 나 스테파노 오텐브레잇 신부는 요조 조브코 신부 (Fr. Jozo Zovko)가 우리 수도회 헤르체코비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몽소 승천 관구의 신분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회원 (a Member in good standing)임을 증명합니다. 나는 또한 요조 신부가 본 수도회로부터 전혀 정직당한 바 없음을 선언합니다. "

2002년 11월 21일 본 수도회 로마 총 평의회 (General Curia) 직인으로 서명하고 봉인되었음.

신앙 안에서, 프란치스코회 총대리 스테파노 오텐브레잇 신부 헤르체코비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승천 프란치스코회 관구 관구장 슬라브코 솔도 신부님 (Fr. Slavko Soldo, OFM, Provincial Herzegovinian Franciscan Province of the Assumption of the BVM)은 다음과 같이 쓰고 계십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는 신분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리 공동체 정회원입니다. 그는 1981년 복되신 어머니의 발현이 시작되었던 당시 메주고리예 본당 신부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는 공산 정권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메주고리예 본당 신부로서 요조 신부는 공산주의 법원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복되신 어머니 평화의 모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요조 조브코 신부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도, 상담 그리고 설교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교회 안에서 보냅니다.

메주고리예에서의 복되신 어머니의 발현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요조 신부가 그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예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를 성모님께 봉헌된 헌신적인 사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피정을 지도해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주도록 요조 신부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초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제들과 주교님들이 계십니다. 요조 신부는 헌신적으로 그와 같은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며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화와 만사의 선을 빌며!"
모스타, 2002년 11월 14일, 관구장 슬라브코 솔도 신부

2003년 2월 3일 Letters of Clarification Regarding Fr. Jozo (From www.medjugorje)
신 경남 스테파노 신부 번역 M

다음은 첫 딸을 해산한 목격증인 비스카와 엠미누엘 수녀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성모님께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비스카 : 가까운 시일안에 저는 다시 제가 살던 집앞의 계단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수녀님 : 계단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비스카 : 저도 아주 기쁘답니다. 저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순례자들을 만나는 것도 저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도 전하며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들이 제게는 커다란 기쁨이지요.

수녀님 : 전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떡게 평화를 유지해나가야 하는지 말해주겠어요?
비스카 : 성모님께서 전쟁에 대하여 언급하신적이 없습니다. 수녀님게서도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도 전쟁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서는 이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표정이나 행동 또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성모님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고통은 너무나 컸으며 전쟁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결코 전쟁이 시작될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아주 여러번 (지금도 그러시지만) 기도와 단식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모님을 도와야합니다.

수녀님 : 성모님의 학교에서 일컫는 인간적이 아닌 신성한 평화 즉,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스카 : 이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듯이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화(Purify)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그런 평화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성모님께 진정한 평화와 온유의 은총을 청하면 그 분은 그것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변화 되기를 청해야합니다. 평화는 그저 말로만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저 말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므로서 내적으로 정화된 평화를 우리마음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수녀님 : 묵주기도의 해(Year of Rosary) 인 올해 어떤 변화를 예상합니까?
비스카 : 아시다시피 모든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주 기도를 하는 것을 오래기간 동안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가지 새로운 신비가 더 생겼으므로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합니다. 기도속에서 산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비가 생겼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하고 방황하지말고 즉시 시작해야합니다. 그때 비로서 우리는 그 신비의 뜻이 우리마음에 와 닿음을 느낄것입니다. 우선 행동으로 옮기십시요. 그러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 당신을 믿습니다.

<남홍익 그레고리오>

아내 미카엘라를 처음 만난 곳은 1975년 초 명동 성당에서 매주 금요일에 있던 레지오 마리애의 하늘의 문 Pr. 회합에서였다. 레지오 단장인 친구가 레지오 마리애 활동을 해 볼 것을 권해서 성모님과 그리고 미카엘라와의 인연이 맺어졌다.

그때는 성령 쇄신 운동이 시작되던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나는 돈암동 성당의 성령기도회에서 성령의 현존하심을 체험하고 그 역사하심의 뜨거움으로 한창 불타 있을 때였다.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만날 때마다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며 열심히 성령 세미나를 권했지만 모두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단원 모두가 세미나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봉건적인 사상 안에서 자신과는 먼 이야기였던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서도 살아계시며 활동 하심을 체험한 레지오 단원들은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돈암동 성당의 성령 기도회를 매주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따라서 레지오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 때 미카엘라와 나는 간부였기 때문에 자연히 함께 지내는 기회가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남녀 혼성인 레지오의 분위기가 염려 되어서 만나는게 항상 조심스럽곤 하였다.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도 단원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미카엘라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났다. 단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알아 보니 같은 레지오에 있던 남자 단원의 배우자가 될 여자의 세속 이름이 미카엘라와 같았던 것이다. 우연히 혼배 성사 시간도 한 시간 차이로 결혼 날짜까지도 같았다. 그 덕분에 우리의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단원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결혼 후에 내가 미카엘라와 처음으로 다투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 나는 미카엘라가 계획한 신혼여행 일정을 부산으로 떠날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른 채 달콤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의 꿈이 그 이튿날부터 엉망이 될 줄이야. 다음날부터 신혼 여행길에서 찾아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미카엘라가 레지오 활동을 할 때 성모병원의 산업재해병원에 입원 해 있던 환자들이었다. 9일 간의 신혼여행이 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내는 일정으로 계속되니 미카엘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뻐하는 미카엘라를 바라보며, 그래도 우리끼리 지내는 시간은 따로 있으려니 하고 끝까지 참고 노력하려던 나의 인내심이 드디어 폭발하고야 말았다. 지금까지는 이상한 신혼여행이였지만 오늘 하루는 잘 보내야지 하며 마지막 신혼여행지인 진주에 도착 했을 때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나의 핑크빛 꿈에 대한 기대는 무참히 사라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도 레지오 활동을 하며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신혼여행의 마지막 밤도 그 부부와 함께 가게에 딸린 좁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튿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온 것인지 봉사활동을 나온 것인지 알수가 없다." 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결혼반지를 빼서 길바닥에 집어던져 버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도 안하고 왔는데 더 화가 난 것은 내가 왜 그러는지를 미카엘라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결혼이 어느 덧 세월이 지나서 2남2녀의 아이들과 함께 금년에 결혼 25주년을 맞게 된다. 언제 지나 갔는지

모르게 흘러 가버린 25년의 세월은 곱던 미카엘라의 얼굴과 나의 얼굴에 이제는 중년의 흔적을 남겨 주었다.

1995년초, 나는 미카엘라가 임신 3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하나의 가족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그 늦둥이가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잘못된 염색체 때문에 평생을 몽고리즘 신드롬 아기라는 이상한 이름의 기형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뻐하며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의 정성도, 형과 누나들의 사랑도 아기에게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랑하는 자식이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데 부모로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괴로움으로 밤이나 낮이나 울면서 사는 미카엘라를 위로 해주며 내색도 할 수 없는 나의 괴로움은 위로 받을 곳이 없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뜻없는 시련을 주실리가 없다고 믿으면서도 괴로와 하는 미카엘라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저희들입니까?" 라고 하며 제발 이 일이 현실이 아니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몇 번에 걸쳐 다시 받은 태아 검사의 결과는 잔인하게도 우리들에게 아기 염색체의 사진까지 보여 주며 아기의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일을 알게 된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걱정하며 우리와 아기를 위해서도 아기를 유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괴로워 하는 미카엘라를 바라보며 나는 냉장고에 붙여진 뱃속의 아기 사진에다 아기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지어 붙여 놓고 식구들이 아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도록 하며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기도 우리들의 가족임을 알게 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기가 죽을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성모님께 크리스를 봉헌하며 매달렸다. "성모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요. 이 아이가 평생을 장애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이 살아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직도 하느님의 창조 중에 있는 우리 크리스에게도 해 주시도록 도와 주십시요." 하고 매달렸다.
어느 날 우리 크리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다. "그레고리오 형제님, 기도 중에 환시를 봤는데 성모님께서 미카엘라의 뱃속에서 크리스를 데려다가 당신의 태중에 품으시는 것을 봤어요.걱정하지 마세요. 크리스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하셨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말씀처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크리스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 몇달 사이에 우리 가족들에게 있었던 체험과 많은 일들은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몇년 후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성모님께서 매일 오신다는 그곳에 가서 직접 성모님께 "크리스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9일기도를 하며 기다리던 중에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게 됐을 때 설레였던 그 마음은 평생 못 잊을 것이다. 메주고리예에서 현존하시는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 하며 돌아온 나는 미카엘라에게도 메주고리예 순례를 권했으나 미카엘라는 "성모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인데 왜 꼭 그 곳에 가야만 하느냐?" 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곳을 다녀온 후 변화된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쳐다보며 너무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성모님께서 언젠가 미카엘라도 그 곳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때를 기다리며 아무말 없이 묵주기도만 열심히 하였다.

마침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성모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미카엘라를 메주고리예로 부르셨다. 메주고리예는 절대로 가지않겠다고 버티던 미카엘라가 메주고리예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녁 늦은 시간에 메주고리예를 안내하는 분에게 가장 빠른 시기에 메주고리예를 가게 해 달라고 자신이 직접 신청한 것이다. 며칠 후 메주고리예로 떠난 미카엘라는 많은 내적 치유를 받으며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불치의 병을 갖고 있던 늦동이 크리스가 임신 중에 있을 때 우연히 이름도 모르는 외국 신부님의 치유 예절에 참석하여 특별한 체험을 하게된 일이 있었는데 메주고리예에서 그 신부님이 바로 요조 신부님이였음을 알게 된 미카엘라는 모든 것이 성모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음을 그 곳에서 새삼 깨닫고 감사한 마음에 너무 많이 울어서 울보라는 별명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달 후 다시 메주고리예 순례를 떠났다. 그 후 우리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 서로 잘 알기에 기도중에 함께 그곳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던 중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지쳐 있던 나는 메주고리예로 향했다. 어머니의 품 속같은 그 곳에서 건강을 치유받아 성모님의 넘치는 평화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나와 미카엘라는 우리들의 살아 계신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그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얼굴을 맞대고 밤을 새웠다. 그리고 14년 동안 다니던 미국 굴지의 큰 회사의 지점장직을 미련없이 그만 두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우리는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를 만들었다. 세계 각국에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을 전하는 소식지가 있으나 매년 몇 백 명씩 되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다녀가면서도 한국어로 된 소식지가 없음을 알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몇 달을 고심한 끝에 2001년 1월에 '메주고리예'라는 제목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어 월간 소식지를 발간했다. 미카엘라와 나는 지금은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성모님께서 당신의 유능한 일꾼들을 모아서 일을 하실 것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순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편집하는 과정부터 포장과 발송까지 모든 것을 둘이서 직접하여 지금까지 16호를 발행, 14 만여부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까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의 무료로 보냈다. 몸은 피곤하고 고달팠으나 좋은 반응 때문에 힘든것도 몰랐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쁜 마음과는 달리 소식지를 만드는 인쇄비와 우편료를 매달 6천여불씩 충당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과 메주고리예 순례를 직접 안내하면서 남는 이익금도 도움이 됐으나 매달의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지만 소식지를 통해 전해지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 나머지는 개인 경비로 유지해 갔다. 힘은 들었지만 소식지를 받아본 독자들이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며 가정과 개인적으로 일어난 변화와 신앙생활의 체험을 전해 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큰 보람으로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은 9.11 사태로 우리에게도 노력만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이 왔다. 그동안 큰 도움이되었던 순례 마저 9.11사태로 취소가 되면서 몇 달씩 순례를 갈 수가 없게 되자 이런 저런 일에 신경쓰던 나는 한 달도 못되서 체중이 갑자기40 파운드가 빠지면서 결국 쓰러지게 되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급성당뇨로 당뇨치수가 567 이나 되었다. 의사는 300만 넘어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 달 동안이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그래도 소식지는 계속 발행했으나 결국 몇 달을 못가서 중단 해야만 했다. 또한 평화의 모후 센타를 지도해 주시던 김한기 신부님께서도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다.

소식지를 만들지 못한 몇 달동안 미카엘라와 나는 교황님께서도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를 축복하셨으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어디든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인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떨까 궁리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말, 신경남 신부님과 인터넷 관련 봉사자 두 분, 그리고 우리 둘이 이끌어 오던 평화의 모후 센터를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시키는 일을 담당하실 분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날이 바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발촉된 날이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발촉되던 날은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주 평화의모후 센터'를 발전적인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뜻깊은 해체를 하였다. 그리고 우연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성모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선교회에 관련된 봉사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평화의모후 선교회는 더 이상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앞으로 평화의모후 선교회는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신경남 지도신부님과 회계, 인쇄, 통관, 운영그리고 세 분의 컴퓨터 전문가 들로 구성된, 교회 일에 경험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인터넷과 출판을 통해 성모신심을 전하는 일에 함께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운영하는 선교회가 될 것이다. 또한 늘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자문 사제단과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성모님의 신심을 전하는 메주고리예와 성지의 순례안내도 겸하며 신심서적 출판과 세미나, 강연을 주관, 후원하며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하는 선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평화의 모후선교회가 미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의 가톨

릭 선교회로 등록을 했을 때 그동안 세금 혜택도 못받으면서도 기꺼히 도와 주시던 많은 분들이 생각났다. 그동안 그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베풀어주신 사랑과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성모님께서 이끄시고 봉헌된 선교회로 출발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 선교회가 맡은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생각한다. 성모님께서도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라고 겸손되이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는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평화의 선교사가 되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모님께서 주시는 다섯개 조약돌의 힘과 의미를 온 세상에 전할 때이다. M

미 동부지역 제 2차

은사적 성모 신심 세미나

성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올바를 성모신심을 가짐으로써 풍성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에 사랑하는 교형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3년 5월 9일(금요일) 7pm 부터 11일(일요일) 5pm까지
장소 : St. Pius X Spiritual Life Center, Blackwood, N.J.
주최 : K.S.C.
주관 : 미주가톨릭 신앙쇄신 세미나 봉사팀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음악봉사 : 최옥진 데레사 자매
참가비 : $150
참가신청 및 문의 : 전화 215-646-3390 (이관우 부제)

<절취선>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2003년 5월 19일 ~ 11일)

이름 _____ 영문 _____ 세례명 _____

년령 _____ 성별 (남/녀) 참가비 $150 동봉( ) _____

주소 _____

_____

전화 집 _____ 직장 _____ 소속 _____

공동체 _____

보내는 주소 : Deacon Paul Lee
301 Tennise Ave. Ambler, PA 19002

Queen of Peace Missionary

Monthly Message from Medugorje

March 25, 2003

"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pray for peace. Pray with the heart, little children, and do not lose hope because God loves His creatures. He desires to save you, one by one, through my coming here. I call you to the way of holiness. Pray, and in prayer you are open to God's will; in this way, in everything you do, you realize God's plan in you and through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03/2003

Monthly Reflection on our Lady's Message

ADDRESS OF JOHN PAUL II

"Sound of Medugorje" Conversion Story

ROSARIUM VIRGINIS MARIAE

Holy Father has declared October 2002 to October 2003 as the Year of the Rosary.

Excerption from "Apostolic Letter" of Holy Father

...With these words, dear brothers and sisters, I set *the first year of my Pontificate* within the daily rhythm of the Rosary. Today, *as I begin the twenty-fifth year of my service as the Successor of Peter*, I wish to do the same. How many graces have I received in these years from the Blessed Virgin through the Rosary: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I wish to lift up my thanks to the Lord in the words of his Most Holy Mother, under whose protection I have placed my Petrine ministry: *Totus Tuus*!

October 2002 – October 2003: The Year of the Rosary

3. Therefore, in continuity with my reflection in the Apostolic Letter Novo Millennio Ineunte, in which, after the experience of the Jubilee, I invited the people of God to "start afresh from Christ",(6) I have felt drawn to offer a reflection on the Rosary, as a kind of Marian complement to that Letter and an exhortation to contemplate the face of Christ in union with, and at the school of, his Most Holy Mother.

www.vatican.va

"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pray for peace. Pray with the heart, little children, and do not lose hope because God loves His creatures. He desires to save you, one by one, through my coming here. I call you to the way of holiness. Pray, and in prayer you are open to God's will; in this way, in everything you do, you realize God's plan in you and through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ssage of March 25, 2003

"DO NOT LOSE HOPE"

Also in this message, the Blessed Virgin Mary tells us: "Pray with the heart and do not lose hope". It may happen that we lose hope, that we have the impression that God does not hear, as if he withdrew from this world and from his creatures. But can God forget what he has created?

In Our Lady's words, we can feel an indestructible hope in spite of all the menaces of war, catastrophes and dark prognostics that fill the newspapers. Mary tells us that we are also responsible for peace. Peace does not come without our implication. Surely it is more easy to remember God when we are struck by a hardship or a calamity. War threat and threat against life itself awaken us from spiritual sleep and we remember that there is someone who is absolute, almighty and not threatened as we are. This is why we have to find again the foundations and the source of our life, the rock on which we shall build our life and this world, and on which we shall lean.

In Holy Father's Apostolic Letter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we can also feel hope in spite of all that does not awaken any hope in a better future.

In Jesus Christ, our God lived on this earth and had the body, just as us, walked on the paths of our life. Jesus and Mary were not spared from suffering, cross, sorrows and joys of life. We can either give in to despair or cling to faith. Discouragement or faith. We can lean on God, on the world of God, without any other support, just like St. Peter when he jumped into the water counting on the world of Jesus, who said, "Come!" (cf. Mt 14,29) He believed in Jesus. Faith and hope are vary close, almost identical.

This is what Peguy writes: "I am not surprised, says God, that people believe in me. It is enough for them to look at my creatures and they will believe. Love also does not surprise me, because it is a gain for them if they love one another, it us useful for them. But hope, hope amazes me."

Great saints were not tempted directly against faith or against charity. Jesus himself in the garden of Gethsemane was tempted against hope. Little Teresa from Lisieux, on her deathbed, was also tempted against hope when the devil told her: "My dear, do you really think that there is something after death?" The Cure of Ars, who packed several times his luggage to run away from Ars, has not done it because he was losing faith or love, but because he saw no hope at all.

There is one means to make us learn to hope, the same that Jesus used when he was tempted against hope or provoked to be unfaithful from the will of the Father, which was often so rigid: he spent night in prayer.

The source of hope is prayer, and prayer demands from us to be awake. In order to practice hope, we have to become permanently available as Mary, who expressed it through her YES to the will of God. Through her yes, God has done great things. A human yes open the door to God so that he may enter into this world and save it. Today also, Mary pronounces this yes through her coming here, inviting us on the path of holiness.

Our Holy Father invites us on the path of holiness. In his letter "Novo Millennio Ineunte" (31), he says: "It would be a contradiction to settle for a life of mediocrity, marked by a minimalist ethic and a shallow religiosity." In

his Speech on the Mountain, Jesus says: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t 5,48). As if he wanted to tell us: be happy as your heavenly Father is happy. In the words of Mary, our Mother, let us hear the echo of the words of Jesus, and let us allow her to lead us to him.

Fr. Ljubo Kurtovic
Medjugorje, January 26, 2003

This article is from Medjugorje's own Web Site at: http://www.medjugorje.

ADDRESS OF JOHN PAUL II TO THE TEAMS OF OUR LADY ON THE SPIRITUALITY OF THE CHRISTIAN

1. On the occasion of your international meeting in Rome, I am happy to welcome you, the regional leaders of the *Teams of Our Lady* (*Équipes Notre Dame*), your international spiritual advisor Mons. Fleischmann and the other priests who have come with you. I thank the international leaders of the movement, Mr and Mrs de Roberty, for their cordial greeting.

2. First of all, how could I not recall the person of Fr Henri Caffarel, your founder, who guided so many couples and initiated them to the prayer of contemplation. On the centenary of his birth, I am happy to join in your thanksgiving. Fr Caffarel taught the greatness and beauty of the vocation to marriage, and, anticipating the fruitful directions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he set forth the call to holiness set integral to marital and family life (cf. Lumen gentium, n. 11). He knew how to proclaim the major traits of the marital spirituality that derives from Baptism and underlines the dignity of human love in the plan of God. The attention he gave to the persons who were involved in the sacrament of marriage led him to put his gifts at the service of the "spiritual movement for war widows" that became the "*Hope and Life*" movement and gave him the impetus to create the first *Centres for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present everywhere today. Later on the "Teams of Our Lady for Young People" were created out of his concern to support young people in their faith journey.

3. In the face of the threats that weigh upon the family and the factors that weaken it, you have chosen a pertinent topic for your meeting: "Couples Called by Christ to a New Covenant". In fact, for the Christian people, marriage, that was elevated to the dignity of a sacrament, is by nature a sign of the covenant, of the communion between God and the human person, and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So, for the duration of their lives, Christian spouses receive the mission to manifest in a visible way the indissoluble covenant of God with the human race. Christian faith presents marriage as Good News: the total, reciprocal, unique and indissolubl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called to give life. The Spirit of the Lord gives to spouses a new heart and makes them capable of loving each other as Christ has loved them, and of serving life by living out the Christian mystery, for in their union "the Paschal Mystery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is being accomplished" (Paul VI, *Address to the Teams of Our Lady,* 4 May 1970, n. 16).

4. Mystery of covenant and commun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spouses invites them to draw their strength from the Eucharist, "source of Christian marriage"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 57) and model for their love. In fact, the different phases of the Eucharistic liturgy invite married couples to live their marital and family life after the example of that of Christ who gives himself to human beings out of love. They will find in the sacrament the necessary courage for acceptance, pardon, dialogue and communion of hearts. It will also be a valuable aid for facing the inevitable difficulties of family life. May the members of the Teams be able to be the first witnesses of the grace that one can find in a regular participation in the sacramental life of the Church and of Sunday Mass, "celebration of the living presence of the Risen Lord in the midst of his own people" (Apostolic Letter, *Dies Domini,* 31 May 1998, n. 31; cf. also n. 81) and "antidote for confronting and overcoming obstacles and tensions" (*Discourse to the Members of the 15th Plenary Assembly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the Family,* 18 October 2002, n. 2).

5. Nourished by the Bread of Life and called to enlighten "those who seek the truth" (*Lumen gentium,* n. 35), notably, their children, the spouses will be able to release fully the grace of their baptism through their own mission within the family, in society and in the Church. This was the intuition of Fr Caffarel, who did not want anyone to join "a team to become isolated ... but to learn how to give him/herself to others" (*Monthly Letter,* February 1948, p. 9). Rejoicing in all that you have undertaken, I exhort all the team members to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life of the Church, especially with young people, who want to receive the exacting and exalting Christian message of human love. In this perspective, the team members can aid them to live the period of their youth and engagement in fidelity to the commandments of Christ and of the Church, allowing them to find true happiness in the maturing of their affective life.

6. Your movement has developed its own pedagogy, based on the "concrete points of effort" which help you as a couple to grow together in holiness. I encourage you to live them carefully and perseveringly in order to love in truth. I invite you especially to develop personal, marital and family prayer, without which a Christian risks being lost, as Fr Caffarel used to say (cf. *L'Anneau d'Or*, March-April 1953, p. 136). Far from turning them away from their action in the world, genuine prayer sanctifies the couple and their family, opens the heart to the love of God and of the brothers. It also makes them capable of building history according to the plan of God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Letter on Aspects of Christian Meditation, *Orationis formas,* 15 October 1989).

7. Dear friends, I thank God for the fruitfulness of your movement throughout the world, encouraging you to witness untiringly and explicitly to the beauty of human love, marriage and the family. At the end of this audience, my prayer goes out to couples in difficulty. May they find on their path witnesses of the tenderness and mercy of God. I wish to repeat my spiritual closeness to separated persons, divorced persons, and the divorced and remarried, who, like the baptized, are called, in respect for the laws of the Church, to participate in Christian life (cf.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 84). Finally, I express my gratitude to the spiritual counselors who make themselves available for you. They bring their competence and experience to your lay movement. By means of their collaboration, priests and couples learn to understand, appreciate and help one another. You who experience the grace of a priestly presence, pray for vocations and fearlessly hand on to your children the call of the Lord.

8. Entrusting you, your teams and their families to the intercession of *Our Lady of the Magnificat*, invoked each day by the members, and also to the Blessed Spouses Luigi and Maria Quattrocchi, I impart to all an affectionate apostolic blessing.

www.vatican.va

All Married, Divorced, Separated Christian Couples, please read further about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OF POPE JOHN PAUL II
TO THE EPISCOPATE
TO THE CLERGY AND TO THE FAITHFUL
OF THE WHOLE CATHOLIC CHURCH
ON THE ROLE OF THE CHRISTIAN FAMILY
IN THE MODERN WORLD "

from the following link in the www.vatican.va website
http://www.vatican.va/holy_father/john_paul_ii/apost_exhortations/documents/hf_jp-ii_exh_19811122_familiaris-consortio_en.html

Testimonial of Faithful

Sounds of Medugorje

Michael O'Brien – Rock Musician
By Wayne Weible

Michael O'Brien, a 25-year-old native of Cleveland, who was rapidly developing into a talented rock musician, had come to be involved with Medjugorje. Six months earlier a friend showed him a tape about the apparitions. He was immediately convinced it was real, and insisted his parents to go to see firsthand what it was about. As good Catholics who had tried their best to raise their kids in the faith, he was sure they would want to make a pilgrimage.

What Michael didn't count on was going with his parents. They asked all of their other children but none had accepted. Michael, acknowledged as the least religious of the family, was the last one they thought world go with them. He was into rock music and all that came with it. Good and bad. And now their son was on the verge of possibly getting a national contract and an opportunity to be a recording star. For reasons unknown to him or his parents, Michael said yes. A few weeks later, they were on pilgrimage to Medjugorje.

The family spent the first few days doing what everyone else coming to Medjugorje does: climbing the hills and mountains, going to Mass and sharing stories with others. Michael was unimpressed. It was only when their group went to meet visionary Vicka that this involvement began.

Standing around after Viska had spoken to their group, watching her sign autographs and having her picture taken with the pilgrims, he imagined himself someday doing the same as a start singer.

Suddenly, Vicka looked at him and asked for a pen and paper. She began writing furiously; giving the note to Michael and telling the interpreter that it was a special message for him from Our Lady.

The young man didn't know what to do or say. The message was written in Croatian. He was shocked when the guide said, "Vicka says it is a special message for you from the Blessed Mother; it says: ***'With your ability and musical talent, you can lead young people to God."***

Michael was stunned. He had never seen Vicka before, and she had no way of knowing he was a musician. He stuck the note in his pocket, convinced that something special was happening, but not willing to accept its consequences or its effect on his rising sings career. In the course of his remaining days at Medjugorje, Michael experienced several other mystical occurrences that both confirmed the message and frightened him. Struggling to ignore them, he was relieved when they finally left for home and the note was stuck in a dresser drawer and forgotten.

6 month later, I (Wayne Weible) met Michael. I asked why he didn't follow up with what had been given to him if he thought it was from the Virgin Mary. He just shrugged his shoulders. Why did he go to Medjugorje in the first place? "Well, it was a good way to see a part of Europe," he answered with a giggle.

During my talk, he talked about how ill effects that rock music had on so many young people, staring directly at Michael. But Michael never flinched; he had heard it all before.

Knowing this was my last chance, I approached Michael once again. "Why didn't you do something about the note? I mean, if it's really from the Virgin Mary, don't you know there are some beautiful religious songs that, well, you could do in a rock style. For instance, there is this song called 'Gentle Woman', which is beautiful, and there are others like it." Michael said,
" I don't know any of those songs but, who knows, maybe someday....."

Several weeks later, I received an audiocassette tape in the mail. It was from Michael. On it was the most beautiful singing of "Gentle Woman" I had ever heard! I sat there listening to it over and over, with chills – and tears. Then I received another audiocassette tape with five religious songs

recorded by my new musician friend. The tape was called, "Sounds of Medjugorje." He had done the entire tape by himself, unknown to the rest of his rock group or his manager.

A Prayer from Our Blessed Mother,

(The following prayer was dictated by Our Lady to Jelena Vasilj (locutionist) on April 19, 1983:)

Oh my Mother!
Mother of goodness, love and mercy!
I love you immensely, and I offer myself to you.
Through your goodness, your love,
and your mercy, save me!
I desire to be yours.
I love you immensely
and I desire that you protect me.
In my heart, oh Mother of goodness,
give me your goodness,
so that I go to Heaven.
I ask you for your immense love
that you may give me the grace
that I will be able to love each person
just like you loved Jesus Christ.
I ask you for the grace
that I be able to be merciful to you.*
I offer myself completely to you
And I wish that you will be with me at each step,
because you are full of grace.
I wish never to forget your grace,
and if I should lose it,
I pray that you will restore it to me again. Amen.

** The phrase **"I ask you for the grace that I be able to be merciful to you,"** means: "Give me the grace to love your will which is different than mine."*

"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평화의 모후 센터에서 만들어오던 소식지 " 메주고리예"가 재정난으로 8개월 동안이나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요조 신부님의 강연회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이제 다시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메주고리예 " 소식지는 이제부터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의 이름으로 발간됩니다. 본 선교회는 미연방정부에 정식으로 가톨릭 선교회로서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 요조 신부님의 강연회 " 행사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소 및 봉사자들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 박 몬시뇰님, 지금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김한기 지도 신부님, 성당의 사용료도 마다하시고 행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퀸즈 성당의 서상봉 주임 신부님과 진행을 도와주신 남희봉 신부님, 그리고 LA 바실 성당의 박병준 신부님, 미주 가톨릭 신문사의 최재영 신부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곳의 행사를 통하여 전쟁 고아들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될 9천불의 기금과 전쟁 고아들을 위한 성당을 짓다가 중단된 공사에 사용될 3천불의 기금, 행사 기간 중에 들어온 전쟁 고아들의 " 대부모 프로그램 " 을 위한 2,900불을 요조 신부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조 신부님께서는 한국 신자들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로 만난 모든 분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개월동안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던 " 메주고리예 " 소식지의 재발행을 위해 남겨두었던 4천 9백불을 포함한 행사 내역서를 NY 행사를 주관해주신 박 몬시뇰님과 김한기 지도 신부님께 보고드렸으며 퀸즈 성령 기도회의 김기백 회장님께도 참고로 전해드렸습니다.

" 요조 신부님 강연회 " 개최와 " 메주고리예 "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특별히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퀸즈 성당의 김기백 성령기도회 회장님과 기도회 회원님들, 박근택 효안 한의원 부부님, 자비를 들여 봉사하시며 LA 까지 와서 음악을 맡아주신 홍 바오로 데레사 부부님, 베이사이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회원님들, 메주고리예 순례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LA의 친 모니카 자매님과 소피아 자매님 그리고 그 외 이름을 열거하지 못한 많은 봉사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이태리에서 통역 때문에 오신 남 말따 자매님께서는 예정에 없던 LA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일정을 취소해가며 통역을 해주셨으며 통역료를 성모님의 소식지인 " 메주고리예 " 를 발행하는데 써달라고 기금으로 내주셨으나 이미 NY의 행사 때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금액이 마련됐기에 지출을 제외한 LA의 행사의 기금과 함께 요조 신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요조신부님과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쓰시는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대신하여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회장 남그레고리오 및 임원 일동

편집실후기

은혜가 큰 행사를 치루고 나니 뒷말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저런 뒷말을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마음에 실망도 되고 본인들이 받은 소중한 은혜를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어찌하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 살렘으로 입성하실때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아니였던가...

성모님께서 앞으로도 세상일에 마음 상하지말고 더욱 겸손하게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겪으신 아픔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오히려 은혜로운 마음으로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었으니 은혜는 악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음을 배웠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6월 순례

(메주고리예, 이태리, 드브로브닉)

미국출발 -19 일부터 29 일까지
한국출발 -20 일부터 30 일까지 (10 박 11 일)

로마, 바티칸, 아씨시 성프란치스코 성인, 성 글라라 기념성당, 메주고리예 드브로브닉(아드리아핸안가의 성곽도시, 천주교 신앙의 유적지, 성 루까 및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진 곳, 성 실반의 시신은 1700 년이 되도록 부패하지 않고 있음)

지도신부 : 김한기 신부 (원주 태창동성당 주임)
경비: 인천출발 220 만원, 뉴욕 출발 $1,890 / LA, San Francisco 출발 $1,990

7월 순례

부모님과 일반 성인도 함께 참여 할 수있는
"영어권 청소년 및 한국어권 청소년의 합동 순례"

미국 출발 : 7 월 27 일부터 8 월 8 일까지 (12 박 13 일)
한국 출발 : 7 월 28 일부터 8 월 9 일까지

로마, 바티칸, 오르비에또 성체의 기적 성당,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와 성 글라라 기념성당, 선박편으로 아드리아해 횡단, 메주고리예 세계 청소년 대회, 아드리아해의 진주라 불리는 드브로브닉 성곽도시, 몬테네그로의 천주교 신앙의 성지(중세기의 수도원과 치유 은사의 성인성지),항가리의 부다페스트 성 스테판 성당

경비 : 인천 출발 280 만원 / 뉴욕출발 $2,200 / LA San Francisco 출발 $2,300

문의처 U.S.A. **남홍익 그레고리오**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 e-mail. gregorynam@hotmail.com

한국 **허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031-878-7362 / HP.017-785-3535 / e-mail : hhk2123@hanmail.net

"성모님의 부르심에 깨어나 온세계에 평화를 전합시다."

1)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단다. 지금이라도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를 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당신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2)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신 성모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죄의 분별조차 희박해진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함께 참여합시다.

3) 결코 후원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함께 하시는 티없으신 성모신심을 통하여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들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지향은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 해 드립니다.

메주고리예 순례 때와 첫 째 토요일에 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메주고리예 순례 때 드리는 봉헌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온 세계에 주시는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메시지 전파를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실 단체나 봉사자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본 소식지는 비매품이며 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쓰여집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메주고리예 소식지" 구독 신청서

성명 :	영문 :	영세명 :	
주소 :			
자택전화 :	직장전화 :	Fax :	H.P.:
e-mail 주소 :		소속 본당 :	
해당란에 O표하여 주십시오.	매월	6 개월	1 년	기타
보내실 곳 (Mail to)	USA : 남 그레고리오 e-mail : gregorynam@hotmail.com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한국 : 허혜경 안젤라 e-mail : hhk2123@hanmail.net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031-878-7362 / HP.017-785-3535)		

평화의 모후 선교회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예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 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 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한하며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www.qpmm.org
contact@qpmm.org

Queen of Peace Missionary

U.S.A.

남홍익 그레고리오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 e-mail. gregorynam@hotmail.com

한국

허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031-878-7362 / HP.017-785-3535 / e-mail : hhk2123@hanmail.net